

국방부

비매품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국방부

목 차

하나

21세기 선진한국을 지켜낼 강군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국방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절실한 과제입니다.
- 국방개혁, 국민과 함께 선진정예강군을 만들어 갑니다.
- 국방개혁, 이렇게 추진합니다.

둘

2020년 우리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보·지식중심의 디지털군으로 바꿉니다.
- 낮은 비용, 높은 효율의 국방운영 체제로 혁신합니다.
- 꿈과 보람이 있는 활기찬 병영문화로 가꿉니다.

셋

국방개혁,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 소요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신중하게 추진합니다.
-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하나

21세기 선진한국을 지켜낼 강군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고도 성장을 이룩하고 선진민주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 역할을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국방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절실한 과제입니다.



- ① 정보·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전쟁양상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각 국은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대상황에 맞는 군사력을 건설해야 합니다.
- ② 우리 군은 아직도 병력과 재래식 무기위주로 구성되어 현대전에서 중요한 합동성 발휘가 제한되며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이 시급합니다.

병력위주의 대군체제 유지



국방운영 전반에 비 효율성 잔존



-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지속해 오면서 우리 군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하는 체제와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경영혁신이 미진하여 여러곳에 낭비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 병영에는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남아있어서 신세대 장병들이 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국민과 함께 선진정예강군을 만들어 갑니다.

-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보다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첨단정보과학군으로 만들겠습니다.
- 돈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국방관리를 혁신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숙한 민주시민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국방개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보니...



〈설문기관 : 미디어 리서치, 표본오차 ±3.1%〉



국방개혁, 이렇게 추진합니다.

과거에 수차례 국방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그 성과가 미미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과 지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추진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해 갑니다.



- ① 2020년을 목표로 15년간 3단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 ② 주요내용을 법으로 정해서 국민과 약속하에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합니다.
- ③ 국민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튼튼한 국방태세를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합니다.
- ④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해속에서 추진합니다.
- ⑤ 그리고 3년마다 안보환경 및 추진여건에 맞추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해 나갑니다.



그림

2020년 우리 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국방개혁을 역사적인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21세기 '선진정예강군'의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병력 위주의 비대한 군 구조에서 디지털화된 날쌔고 강인한 군 구조로 전환 합니다.

- 병력은 현대화된 무기와 장비를 갖추면서 현 68만여명에서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정예화 합니다.
- 먼저 보고 빨리 결심해서 정확하게 타격하여 승리하는 능력을 갖추어 나갑니다.
- 부대수를 줄이고 중간제대를 폐지하여 지휘계선을 단축합니다.





육군은

병력과 부대수는 줄지만 전투력은 강화됩니다.

병력 17만 7천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대수는 10개 군단에서 6개 군단으로, 47개 사단에서 20여개 사단으로 줄이면서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이동하여,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육군의 능력을 키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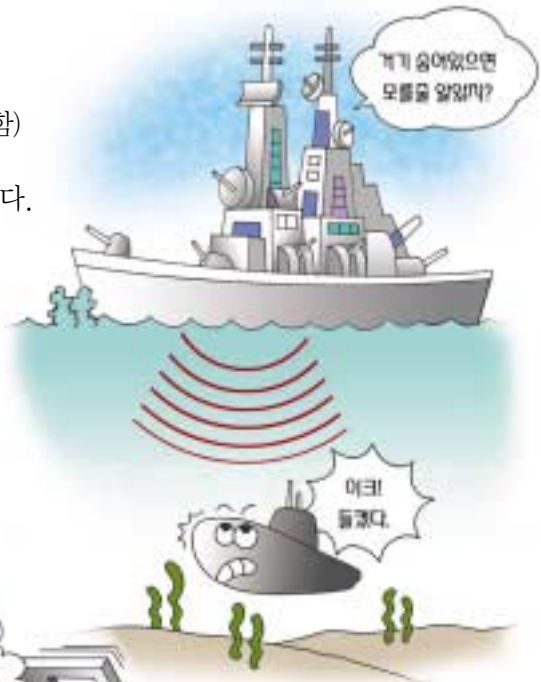
- 육군이 담당했던 해안경계 임무는 전투 임무에 전념하기 위해 타기관으로 전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군단과 사단은 적을 찾는 능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적을 타격하는 능력 등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오히려 지금보다 작전능력이 2~3배 더 커지게 됩니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바꿉니다.

바다 속과 바다 위, 그리고 하늘에서 동시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 해군의 함정수는 줄이되 중·대형함(차기호위함·이시스함) 등으로 보강하여 기동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킵니다.



-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을 보강해서 “귀신 잡는 해병대”의 위용을 더욱 높입니다.



공군은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로 바꿉니다.



현재 중·저성능 항공기 위주로 구성된 500여대의 전투기를
2020년까지 고성능과 저성능 전투기가 조화된 420여대 규모로
정예화하여 공군의 작전영역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필수 전력을 확보합니다.



예비군은 정예화와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구조로 바꿉니다.

예비군을 300여만명에서 150여만명으로 감축하고
훈련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되
장비와 훈련의 질은 향상시켜 정예화하고
훈련비도 증액하여 국민의 노고를 보상합니다.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을 확대하여 선진민주국가로서의 문민통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국방정책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직업군인들은 전투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국방부분부는 공무원 중심으로 편성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민간인력 고용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방 주요직위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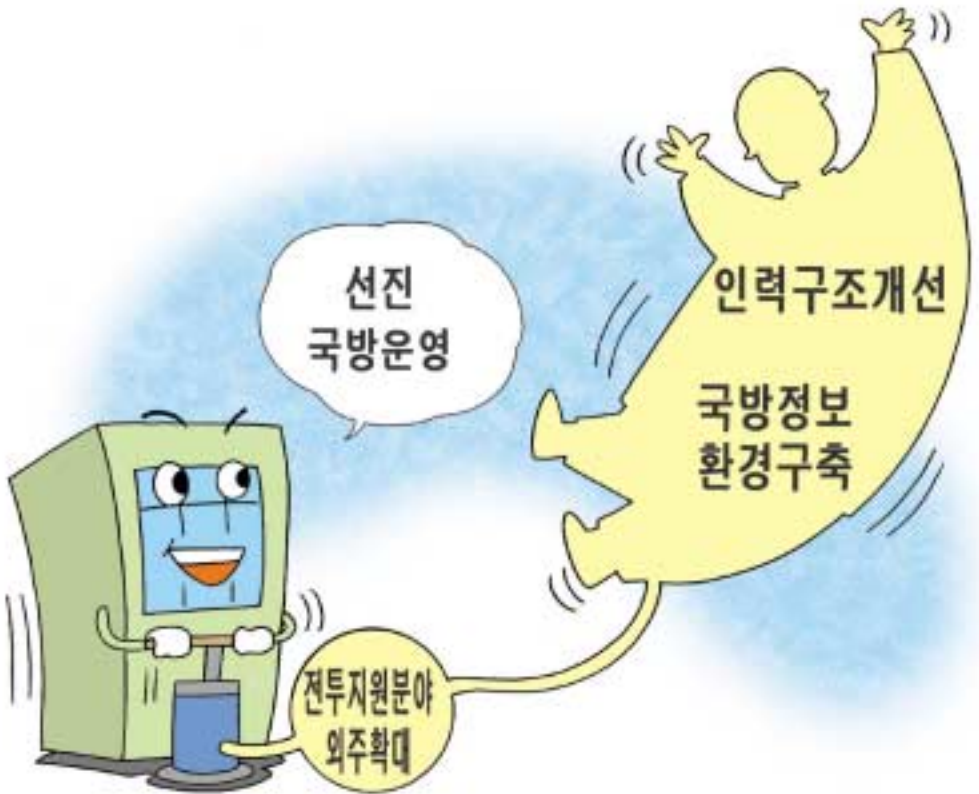
국방획득의 투명성 · 효율성 ·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무기체계 획득 · 개발, 방산관련 업무를 방위사업청으로
통합하여 투명성,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무기체계를 획득하면서 사업관련 비리를
뿌리채 뽑아내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혁신하여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전투근무지원분야를 외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군인은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국방정보환경을 구축해서 각군별 전산실을 하나로 통합 설치하여 유지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은 극대화 하겠습니다.
- 전투효율성을 높이고 합동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군구조개편과 연계하여 인력구조 및 운영체계를 개선합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 군부대가 주둔해서 국민들이 겪는 소음 또는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국가가 보상토록 소음대책 특별법을 제정하고 오·폐수처리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합니다.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듭니다.

- 병영내에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장병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해 나갑니다.
- 군 복무 기간이 ‘잃어버린 시간 또는 인생의 정체기’로 인식되지 않도록 군복무 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해 나갑니다.
- 군 복무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군 복무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합니다.



가정 같은 환경속에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군대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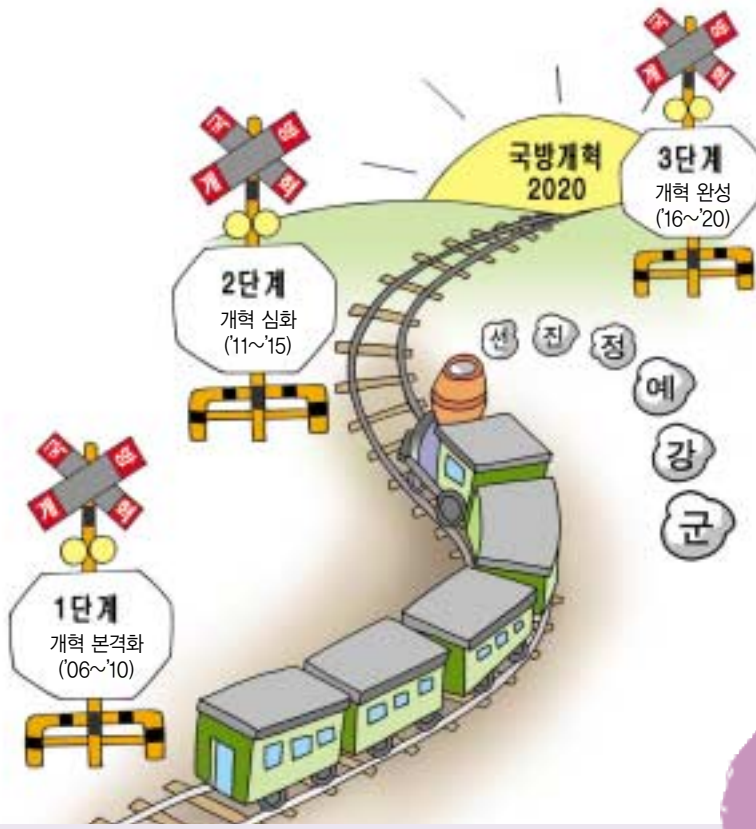
- 장병징병검사체계를 과학화하여 복무부적합자의 군 입대를 차단하고 군복무 중 발견하는 복무부적합자도 즉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합니다.
-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병영시설을 개선해서 내집 같은 아늑한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인간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

- 장병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 신세대 장병의 개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자율적 생활을 보장합니다.
- 군 간부들의 리더십을 강화해서 부하와 함께하는 간부를 육성합니다.





**국방개혁,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1세기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 국방개혁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방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상황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며 개혁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 범정부차원의 국방개혁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해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소요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 '06~'20 기간중 국방비 총액은 621조원으로 추산하는데 이 중에서 추가전력 확보 등 순수하게 개혁에 드는 비용은 67조원이며 이는 전체의 약1/10에 해당되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간중 우리경제는 평균 7.1% 수준의 경상성장률이 전망되고 정부재정도 경상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국방비 소요가 집중되는 초기단계에 '05년 국방예산 증가율 수준인 9%대 증가율을 유지하고, 그 이후 하향 책정할 경우 확보가 가능합니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신중하게 추진합니다



- 국방개혁 과정에서 어떠한 군사적 취약성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국방개혁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며 3년 단위로 안보환경 및 국방개혁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완·발전 시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 국방개혁은 21세기 선진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업입니다.
- 국방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국민적 공감대, 군의 자발적 노력이 일치된 바로 지금이 우리 군과 국방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하여,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미래에 대한 진취적 비전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2020」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더불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뒷받침할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려는 우리 군의 계획은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